

외신 동향

□ (Special Report) The third great wave (Economist 14.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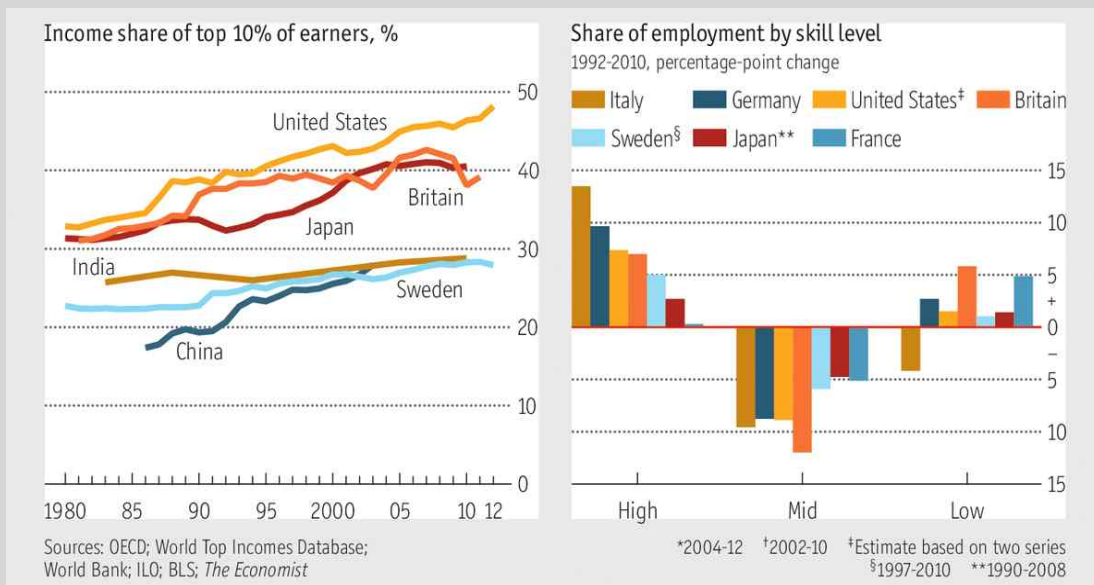
○ 이전 두 번의 산업혁명은 그 과정에서 진통을 수반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모두의 후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제 3차 정보통신(CT) 혁명은 이익이 소수의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사회적 분열화(divisive) 현상을 가속화

-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숙련, 비숙련 노동자 모두의 임금 증가로 연결된 반면, 디지털 혁명에 기인한 기술 진보는 일부 계층의 소득증가로 집중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고숙련 vs 비숙련, 자본가 vs 노동자)

-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보다 소멸 효과(Job destroying power)가 더욱 큼

* 700개의 직업을 분석했을 때 향후 20년 내에 미국에서 자동화 기술로 대체 될 수 있는 직업의 비중이 약 47%에 달함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Technology isn't wo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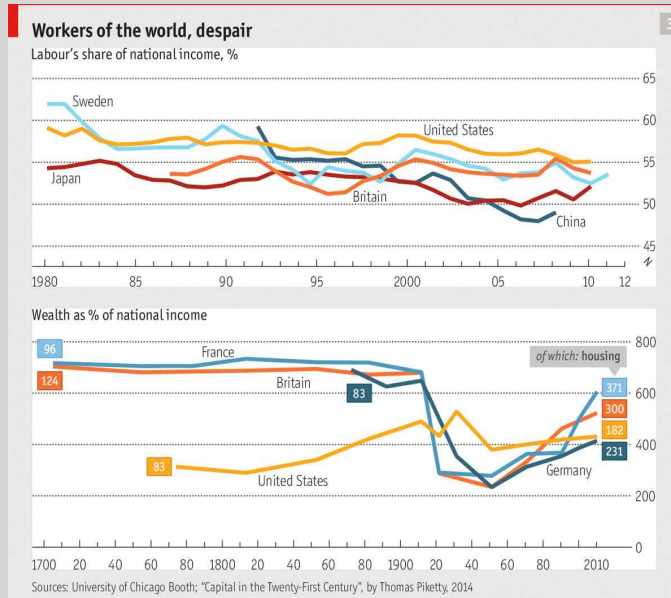


-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소득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 중간층(middle-skill)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labor force polarization)이 심화

○ 노동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자본소득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분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고조

부의 집중 현상 (To those that have shall be given)



-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의 노동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80년 60%대 -> '12년 55%대), 중국의 경우 그 하락 속도가 더욱 가파름 ('90년 60% -> '09년 50% 이하)
-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19,20세기 선진국의 부의 수준은 年 국민소득의 7배였으나 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금 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경제 위기 등으로 1950년까지 선진국 부의 수준이 年 국민소득의 2~3배 까지 하락 했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추세

○ 이러한 디지털 혁명의 기술 진보에서 파생된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고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산 할 수 있도록 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

- 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등 정책 개선을 통한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성 증대
- ②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하여 저숙련 노동자를 고숙련 노동자로 전환
- ③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
- ④ 기술발전이 지니는 창조적 파괴력(creative destruction)을 감안하고 이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제도로 유인